



세 계 일 류 급 으 로 건 설 된 마 식 령 스 키 장

마식령스키장의 눈부신 화폭이 말해주는것은...

희망찬 2014년의 첫 아침은 료다르게 밝아왔다. 지난해가 우주에 위성을 쏘아올린 강국의 기쁨으로 밝아왔다면 올해는 행복과 문명의 제일경-마식령스키장으로 동이 났다. 문명국의 또 하나의 상징 마식령스키장을 보며 누구나 환희에 휩싸였다.

마식령의 험한 산줄기에

인민이 누릴

무엇보다 올해에 공화국인민들이 누리게 될 사회주의 부귀영화의 휘황한 전경도이다.

공화국은 부푸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에게 최첨단 문명세계의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체육과 관광, 휴식을 위한 종합적인 대중체육관광기지인 마식령스키장은 문명과 건축의 최첨단을 돌파하며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져있다. 얼마전 마식령스키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낸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은 한결같이 《훌륭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은 조선의 문화적특성, 세계적특성을 다 보여주고있다. 즐거움을 한껏 누리였다.》하고 하면서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은빛폭포마냥 뿜어내린 눈부신 스키주로들과 썰매주로, 스케트장들, 산속의 궁전같은 최상급의 호텔들과 스키봉사시설들, 줄줄이 뿜어내린 주로들에서 회열에 넘쳐스키를 타는 모습이 세계에 던진 파문은 컸다. 이해의 첫 아침에 펼쳐진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통하여 세계는 무엇을 보았는가.

문명의 높이

스키는 가장 고급한 운동, 사치한 운동종목이라고 말한다. 스키장건설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스키라는데 필요한 장구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비싸 아무 사람이나 선뜻 스키를 탈 생각을 하지 못하는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하지만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이런 근심걱정 모르며 공화국의 남나로소가 터뜨리는 기쁨의 웃음소리가 산발울 울리고있다. 마식령의 아아한 대화봉에서부터 스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은 이 나라의 도시와 마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이 가장 고급한 문명세계에 성큼 들어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3년과 2014년이 교차되는 분기점에서 마식령스키장이 개장

된것은 올해에 공화국에서 펼쳐질 인민의 행복상을 그려보게 하는 한폭의 명화라고 할수 있다.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이 조선에서 창조된 마식령의 새 문명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마침내

최대로 빨리, 훌륭하게

마식령스키장의 개장이 사람들에게 새겨주는것은 새로운 비약의 속도, 《마식령속도》로 내달려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이루어놓을 조선의 굳센 의지와 기상이다.

마식령스키장건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규모의 현대적인 스키장건설공사였다. 게다가 험산준령을 길들이고 고산지대의 불리한 기후조건을 극복하면서 중첩되는 예로와 난관을 이겨내야 하였다. 마식령스키장이 일떠서는것을 배아파한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끈질긴 방해책동도 있었다.

적대세력들이 마식령스키장을 절대로 완공할수 없을것이라고 떠들면서 매일같이 위성사진으로 들여다보며 온갖 악담과 오설을 퍼뜨렸지만 공화국은 세상에 섰던대로 세월을 주름잡아 공사를 다그쳐 1년 남짓한 기간

조선인민의 꿈이 이루어지고있으나, 새해에 조선에서 또다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의 면모가 일신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마다 가지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에 완공하고 새해의 첫 아침에 스키를 타는 인민들의 행복찬 모습을 펼쳐보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다시금 보여주었다. 세상을 놀래운 《마식령속도》창조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마식령속도》라는 말이 처음 알려진것은 지난해 6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호소문에서였다. 그이께서는 호소문에서 인민건설자들이 단숨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이 같이 일떠서는것을 배아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때 대한 크나큰 믿음과 담력을 안겨주시었다.

이 호소문을 불세로 하여 새로운 비약의 속도 《마식령속도》창조의 길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게 되었다. 특히 마식령지구에서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이 인민들

장이 귀뚱한거라네.》 직접 물이군이 된 종현반장이 가볍게 제책을 날렸다.

꽃수레가 가볍게 굴러가기 시작하자 뒤에서는 와와- 하는 사람들의 열띤소리와 박수소리가 따라왔고 멀리 앞에서는 꽃송이며 꽃꼭지를 휘두르며 달려오는 다른 작업반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지. 어보게 인정반장, 정말 수고했네. 명옥이도 그렇고... 지금 동물원은 온통 《평화》에 대한 소리뿐이야. 자, 빨리 나가세. 내가 무일 준비했나 보라구.》

영문도 모른채 종현반장에게 끌려나간 나는 사동밖에 나서자마자 굳어버려졌다.

종현반장이 언제 대기시켜놓았는지 아름답게 장식된 꽃수레가 작업반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꽃수레속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있었고 세한 장난꾸러기들인 두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엄마를 찾고있었다.

《자, 어서 타라구. 《평화》의 후대를 받아낸 명옥동무를 온 세상에 자랑해야지.》

종현반장이 등을 떠밀어수레에 태우려 하자 나는 얼떠름해졌다.

《반장동지, 이진...》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급해난 종현반장이 강제로 떠밀며 속살거렸다.

《실은 이제 다 자네네 반

과 약속하고 세계앞에 섰던 시간은 순간도 드릴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말도 쉬여넘는다는 마식령의 가파로운 산발들을 하루에도 몇번씩 뚫아오르면서 불이 번쩍나게 공사를 다그쳐 스키장건설을 최단기간내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완공하였던것이다.

지금 공화국은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세계는 조선이 올해에 또 어떤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낼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해야 할 일은 아름답지만 경여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정도가 있고 그이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한마음 한뜻으로 실현해가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어 능히 점령할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이 이 땅 가는 곳마다에 차넘치고있다.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꿈과 리상을 최대로 빨리,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실현할것이다!》

새해의 첫 아침에 펼쳐진 마식령스키장의 눈부신 화폭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홍범식

성 황 을 이 름 중 앙 기 관 일 군 체 육 경 기 대 회

지난 1월 23일에 개막된 제19차 백두산상 중앙기관일군체육경기대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열기를 띠고 진행되고있다.

이번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체육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안고 경기마다에서 높은 정신력과 체육기술,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고있다. 모든 참가단체들이 4개부류로 나뉘어 승자전의 방법으로 배구, 탁구, 룡구, 태권도경기 등을 진행하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고있는 탁구경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관람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있다.

탁구경기는 단식과 복식, 단식경기방식의 단체전으로 진행되고있다. 탁구경기에 출전한 많은 선수들이 자기들의 특기와 전술을 잘 살리고 완강한 방어와 공격을 능숙하게 적용하면서 경기를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선수들이 묘한 처넣기와 강한 걸어치기 등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줄 때마다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체육관이 들썩이게 하는 응원도 시간이 흐를수록 고조되었다.

탁구경기에 출전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대중체육활동에서도 언제나 앞장서 달려 왕성한 열정으로 오늘의 영웅적전군에서 투쟁의 기술, 창조적 선구자의 열의를 높이 펼쳐갈 뜨거운 열의와 전투적기백을 잘 보여 주었다.

태권도전당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운동인 태권도경기가 진행되고있다. 태권도경기는 틀과 호신경기로 진행되고있다. 매 팀 선

수들은 경기마다에서 독특하고 세련된 기술을 능란하게 활용하면서 민족의 자랑스러운 태권도의 위력을 잘 보여주었다.

선수들은 기백있는 동작의 일치성, 빠른 속도와 힘, 박력있는 물동과 균형조절, 정확한 타격 등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한편 배구경기와 룡구경기도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대회에서는 배구, 탁구, 룡구, 태권도, 바줄당기기경기가 김일성종합대학 체육관, 평양체육관, 김책공업종합대학 체육관, 태권도전당 등에서 벌어지게 된다.

본사기자



민족유산보호관리를 짜고 든다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 력사유적과 유물을 잘 관리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올해는 오랜 세월 신화적 존재로만 알려졌던 단군을 우리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고 시조릉을 훌륭히 개건하도록 걸음걸을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단군릉이 새로 훌륭히 개건되고 어버이장군님께서 개건된 단군릉을 찾아주시였던 20년을 맞게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를 계기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서는 올해에 단군릉을 비롯한 력사유적들과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한 보수와 관리사업을 더 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단군릉보수를 빠른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첫 두주일 사이에만도 그와 관련한 현지협의회를 2차에 걸쳐 진행하고 그에 따르는 부문별 협의회와 지도국적인 토의사업을 10여차에 걸쳐 진행한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일군들이다.

이들은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설계를 비롯한 모든 공사준비를 선행시키고 2월부터는 공사에 진입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본사기자

목욕을 할 때 주의할 점

과 같은 집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첫째로, 배가 부를 때와 고를 때에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많이 먹고 목욕을 하면 뇌와 배안의 혈액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소화불수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배가 고를 때 목욕을 하면 저혈당이 생겨 허탈증으로 졸도할수 있다.

둘째로, 물의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말아야 한다.

물의 온도는 체온(35~37℃)과 비슷할것이 제일 좋

다. 오래동안 뜨거운 물속에 몸을 잠그고있으면 온몸의 피부혈관이 확장되고 심장과 뇌의 피호름량이 줄어들면서 산소부족을 일으킨다.

셋째로, 목욕하는 회수를 바로 정해야 한다.

목욕회수는 사람과 계절에 따라 달라야 한다. 기름선분비가 왕성한 사람은 목욕회수를 적당히 늘일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회수를 줄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매일 한번, 봄과 가을에는 매주 한두번, 겨울에는 한주일에 한번씩 하며 매년 20~30분간 하는것이 좋다.

성격을 회복하는 간편방법

—배개를 베지 않고 누워 두주먹을 허리에 대고 두 발바닥을 합쳐 무릎을 구부린채 랑쪽으로 힘껏 벌린다. 이 자세로 100까지 세는 동안 있는데.

—넙적다리과 아래배의 경계선 즉 명음이 서는 곳과 랑쪽저드랑이의 움푹한 곳을 각각 10초씩 5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준다.

겨울철 폐 보호

겨울철에 폐를 손쉽게 보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코를 비비는 방법 두 엄지손가락바깥면을 서로 비벼 뜨뜻한감이 나도록 한후 그것으로 코마루와 코방울랑쪽을 아래위로 30번 안마한다. 다음 코방울랑쪽의 영양혈부위를 15~20번 안마한다. 이런 방법으로 하루에 한두번 안마하면 코의 내한능력을 높여 코가 막히는 증상을 막을수 있다.

② 호흡법 저녁식사를 한 후 2시간 지나 공기가 맑은 바깥에

나가 10분정도 걸다가 두 다리를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선다. 이때 두손은 서로 겹쳐놓고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배꼽으로부터 3cm 아래부위에 놓는다. 눈길은 수평방향으로 향한다.

그리고 온몸의 긴장을 풀고 배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숨을 들이킨다. 다음 천천히 숨을 뽐냈다가 다시 긴장을 풀면서 숨을 들이킨다. 이렇게 30분정도 숨쉬기를 반복한다.

본사기자

단편 소설

순결한 마음 (10)

글 주광혁, 그림 김윤일

4

《됐다, 순애야 이제 일어나거라. 그렇게 감격스러우면 너도 자식을 낳아보지 그래.》

룡도 무뚝뚝하게 하는 반장이 한마디 하자 순애의 얼굴은 순간에 앵두빛이 되고 말았다.

《에? 반장아저씨 정말...》

도트름한 입술을 사려문 순애였으나 그의 눈은 부끄러움과 열띤 흥분으로 웃고 있었다.

《뭘 그래, 순애야. 새 생명을 낳는다는것이 얼마나 환희로운것인지 아니? 또 그런것은 반장동지같은 남자들은 아무리 바래도 경험해볼수 없는 우리 녀성들의 특권 이란다.》

나가지 한마디 던지자 순애는 아예 몸돌바를 물라다가 반장과 나의 잔등을 툭툭 두드렸다.

《나독입같은 순애의 주먹에 잔등을 맞기고 나는 사랑스런 눈빛으로 《평화》를 바라보았다.

마치도 그렇지? 하고 물어보는것 같은 내 눈빛에 부지런히 새끼들을 활이주었던 《평화》가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고개를 들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훑어보며 눈을 깜박거리던 《평화》는 그제서야 알겠다는듯 꼬리로 땅을 툭툭치더니 다시금 새끼들의 몸을 들추며 코를 박았다.

지금껏 안절부절 못하고있던 《통일》이 이제는 불안을 가신듯 슬렁슬렁 다가와 《평화》의 귀에 대고 냄새를 맡으며 흠뻑거렸다.

《수고했소.》 하는듯 하더니 만족한 눈빛을 띄우며 《평화》의 옆구리에 턱을 고이고 툭씩 누워버렸다.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되구나 하는 만족감과 간밤을 사람들의 옆에서 함께 지새운 피곤이라도 풀어보려는지 여윌듯 눈을 감아버린다.

《허허, 그 《부부》 참 다정하군 그래.》 한마디 던진 반장이 진도개들의 옆에 무겁게 주저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혼자소리치려 하였다.

《그래 그래, 평화와 통일은 언제나 불가분리한것이야.》

그러더니 거룩진 손으로 《평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웅글은 소리를 내는것이였다.

《우리의 작은 정성속에도 통일을 바라는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있지 않나.》

사동복도에서 누구인지를 말리는 순애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문을 벌럭 열고 말사양관리반의 종현반장이 들어섰다.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지. 어보게 인정반장, 정말 수고했네. 명옥이도 그렇고... 지금 동물원은 온통 《평화》에 대한 소리뿐이야. 자, 빨리 나가세. 내가 무일 준비했나 보라구.》

영문도 모른채 종현반장에게 끌려나간 나는 사동밖에 나서자마자 굳어버려졌다.

종현반장이 언제 대기시켜놓았는지 아름답게 장식된 꽃수레가 작업반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꽃수레속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있었고 세한 장난꾸러기들인 두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엄마를 찾고있었다.

《자, 어서 타라구. 《평화》의 후대를 받아낸 명옥동무를 온 세상에 자랑해야지.》

종현반장이 등을 떠밀어수레에 태우려 하자 나는 얼떠름해졌다.

《반장동지, 이진...》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급해난 종현반장이 강제로 떠밀며 속살거렸다.

《실은 이제 다 자네네 반

장이 귀뚱한거라네.》 직접 물이군이 된 종현반장이 가볍게 제책을 날렸다.

꽃수레가 가볍게 굴러가기 시작하자 뒤에서는 와와- 하는 사람들의 열띤소리와 박수소리가 따라왔고 멀리 앞에서는 꽃송이며 꽃꼭지를 휘두르며 달려오는 다른 작업반사람들의 모습이 안겨왔다.

《드디어 새끼를 낳았다지. 어보게 인정반장, 정말 수고했네. 명옥이도 그렇고... 지금 동물원은 온통 《평화》에 대한 소리뿐이야. 자, 빨리 나가세. 내가 무일 준비했나 보라구.》

영문도 모른채 종현반장에게 끌려나간 나는 사동밖에 나서자마자 굳어버려졌다.

종현반장이 언제 대기시켜놓았는지 아름답게 장식된 꽃수레가 작업반실앞에 서있었던것이다.

꽃수레속에서 남편이 빙그레 웃고있었고 세한 장난꾸러기들인 두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며 엄마를 찾고있었다.

《자, 어서 타라구. 《평화》의 후대를 받아낸 명옥동무를 온 세상에 자랑해야지.》

종현반장이 등을 떠밀어수레에 태우려 하자 나는 얼떠름해졌다.

《반장동지, 이진...》 내가 타지 않으려 하자 급해난 종현반장이 강제로 떠밀며 속살거렸다.

《실은 이제 다 자네네 반

화》를 위해 지성을 바쳐온 자네와 자네부부에게 온 나라가 보내는 축복일세.》

나는 뜨거운것이 고이는 눈가로 손등을 가져가며 속으로 웨쳤다.

《아닙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 부부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않지 않도록 힘을 준 반장동지나 《평화》와 《통일》을 보며 하나될 조국의 미래를 그려보던 사람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안아온 결실입니다.》

호느낌소리가 새어날가보



(고맙습니다. 반장동지...)

나의 마음속인사에 반장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있는것 같았다.

(아닐세, 이젠 내 혼자 보내는 축화가 아니라 《평